
INTX 2015(舊 케이블 쇼) 출장보고서

2015. 5월



방송통신위원회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미국 NCTA 주최 「INTX(Internet & Television Expo) 2015*」를 참관하여 방송통신 서비스 및 장비의 최신동향 파악

* 미국케이블방송통신협회(NCTA, 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주최로 '5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케이블 방송 및 통신 박람회(금년부터 명칭을 'Cable Show'에서 'Internet and Television Expo'로 변경

□ 출장기간 : '15.5.4(월) ~ 5.8(금), 3박 5일

□ 출장국가 : 미국(시카고)

□ 출 장 자 : 방송정책국 류재영 서기관 등 직원 6명

□ 주요활동

- 「INTX 2015」 전시관 및 컨퍼런스 참관

□ 출장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비 고
5. 4(월)	10:40~09:35 14:00~18:00	인천 → 시카고 (비행시간 : 12H55M) KCTA-NCTA 공동주최 'Korean Day' 세미나 참석	대한항공 (KE037)
5. 5(화) ~ 5. 6(수)	09:00~18:00	INTX 2015 전시관 및 컨퍼런스 참관	시카고 (McCormick Place)
5. 7(목) ~ 5. 8(금)	12:35 ~ 16:25(+1)	시카고 → 인천 (비행시간 : 13H50M)	대한항공 (KE038)

1. > INTX 2015 참관 개요

□ 행사명 : INTX(Internet & Television Expo) 2015

※ 주최 : 미국케이블방송통신협회(NCTA)

□ 행사기간 : '15. 5. 5(화)~7(목)

□ 장 소 : 미국 시카고, McCormick Place

□ 행사규모 : 세계 263개 업체 및 방송·IT 전문가 12,000여명 참관

□ 행사내용 : 케이블 방송 관련 신기술·서비스 전시회 및 컨퍼런스 운영

□ 연혁 : 미국케이블방송통신협회(NCTA, 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주최로 '5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케이블 방송 및 통신 박람회(금년부터 명칭을 Cable Show에서 'Internet and Television Expo'로 변경)

※ 미국 케이블방송통신협회(NCTA) 개요

- '52년에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 '02년에 방송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가입대상을 케이블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까지 확대

2 > INTX 2015(舊 케이블 쇼) 컨퍼런스

□ 컨퍼런스 개요

- o 「INTX(Internet & Television Expo) 2015」 컨퍼런스는 5.5일 ~ 5.7일 미국 시카고 McCormick Place에서 개최되어 미국내 케이블TV 산업 이슈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됨



□ 주요 참여 세미나 및 세션

< Korean Day Seminar >

< 브리핑 >

- o HOST : Rick Chesson(NCTA, 법 규제담당 부회장)
Steve Effors(NTTA, 온라인·IP 자문관)
- 참석자 : NCTA, KCTA, 국회, 방통위, SO사업자 등

- o FCC, 인터넷접속서비스(ISP 해당)를 “Title2”로 분류, 강력한 브로드 밴드 규제 시사
- o ISP를 기존 정보서비스(규제없음)가 아닌 전화사업자와 동일한 공적 영역(Title2)으로 편입하여 Common Carrier 규제 추진

o FCC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본 SO들이 반발하여 9개사의 소송 제기

※ 미국 저작권법 '76년 시작하여 11년 소요된 사례가 있어 법제화 안착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o Comcast와 Time Warner Cable 합병 무산에도 규모화 논의는 계획

※ 480억 달러 규모로 제안된 합병이 법무부와 FCC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망 중립성 저해 우려 또는 과도한 점유율 때문이라는 해석

- 한 리서치 회사에서는 합병 이후 TWC가 다른 회사로 가입자를 1/4을 넘기더라도 Comcast는 유료방송TV 30%, 초고속 인터넷 40%로 점유율 예상

o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관련

- 미국은 저작권(Copyright)과 재송신 동의는 상호 독립된 이슈로서
SO의 로컬방송 전송은 저작권료를 낸 것으로 간주되어 재송신
동의를 별도의 법적의무 (정치적 결론의 산물인 의회법(92년)으로 정해졌음)

- 플랫폼 사업자(케이블, 위성, IPTV, OTT 등)는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지상파방송(ABC, NBC, CBS, FOX)은 경쟁이 없어 영향력이 더욱 높아
져서 재송신료는 지속 상승(CBS 사장, “전 매출액의 40%가 재송신 동의
(콘텐츠 판매)에서 나온다” 라고 언급)

- 미국에서는 재송신 문제로 블랙아웃(송출중단)이 계속해서 발생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 SO 업계는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지만 정부는
꺼려하고 있는 상황



< General Session >

o (Interview 1) INTX 명칭 변경의 배경(Michael Powell, NCTA 사장)

-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 중심으로 업계비전 제시, 케이블과 인터넷의 융합으로 산업발전 도모 등 새로운 영역으로 넓히기 위해 케이블 쇼에서 INTX로 명칭을 변경

o (Interview 2) 기술발전을 통한 다양한 변화 발생과 콘텐츠 투자 중심으로 다각적 사업영역 구축 등(Tim Armstrong, AOL 사장)

- AOL의 경우 YouTube로 회사영상을 공개, 참석자 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하는 등 기술발전을 통한 다양한 변화 발생
- 다양한 플랫폼 출현으로 콘텐츠 중요성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모든 회사가 콘텐츠 중심 투자, 스마트폰 인구 40억 명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
- 현재 하나의 사업(케이블, 인터넷, 콘텐츠 등)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o (Panel Discussion 1) Peter Chernin(The Cernnin Group 사장), Brian Roberts(Comcast 사장)

- 브랜드 파워의 중요성 강조(Peter Chernin)
 -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경쟁상황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생존과 성장의 모멘텀[Disney(방송), Universal(영화), AT&T(통신), Comcast(케이블) 등]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중요성 강조, 기업이 도전해야 생존할 수 있으며 변화 없는 기업은 유지할 수 없음(Google, Apple, Amazon, Twitter 등). 지상파 방송도 인터넷과 모바일에 진출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움
 - 향후 시물인터넷, 가상현실이 차세대 기술로 가장 강력한 변화 예상

o (Panel Discussion 2) James Dolen(Cablevision System, 최고경영자), Patrick Esser(Cox 사장), Michael Fries(Liberty Global, 사장), Thomas Rutledge(Charter 사장)

- 케이블 사업자가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양한 양질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
- 유럽의 경우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규제 당국의 관심은 있으나, 시장에 대한 특정한 규제 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유럽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SO는 오픈 인터넷 규칙은 준수할 것이나, "Title2"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FCC가 불필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는 예전부터 망중립성 고수, 서비스를 시작한 '97년 이후 트래픽 차단이나 속도조절 등 오픈 인터넷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
- "Title2"의 전환으로 인한 업계의 변화는 너무나도 크고 새로운 관세/요금 등이 부과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피해를 받을 것임

- 새로운 서비스(OTT 등)로 인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 유료방송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업계는 이를 받아들이고 변화해 나가고 있음
-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등 고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o (Keynote) - Thomas Wheeler(FCC, 위원장)

- 케이블은 더 이상 방송사업자가 아닌 브로드밴드 사업자로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하며 관련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함
- 업계가 약속했던 오픈 인터넷 규칙을 준수하고 인프라 투자를 지속
 - 트래픽 차단, 속도의 조정 등 오픈 인터넷 규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FCC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반하는 모든 사항 등을 개선할 것임
 - 오픈 인터넷 규칙을 준수한다면 경쟁이 활성화되고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임
 - SO업계는 선도주자로서 인프라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여 미국 전역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을 질을 높여왔으나,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므로 브로드밴드 사업자로서 새로운 방향성 제시, 의무 수행을 강조
 - “Title2”를 통해 FCC는 과도한 수수료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SO업계가 반대하고 있으나 FCC는 합의된 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며 새로운 환경의 조성, 지속적인 수익창출, 오픈 인터넷 규정의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임

□ 「INTX 2015」 전시회

○ 전시 개요

- 전 세계 263개 업체가 참가하여 클라우드 UI 기반 스마트 셋탑, 스마트홈, TV Everywhere, Sling TV 등 전시



○ 전시 동향

< Comca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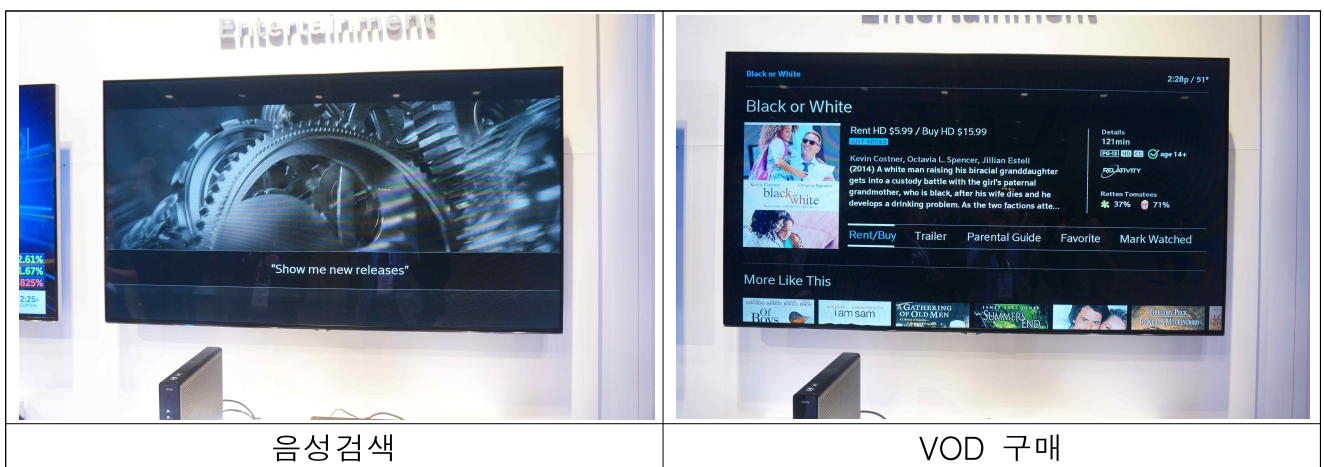


Comcast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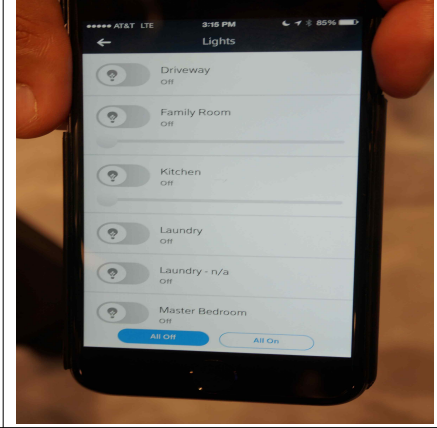
Comcast 부스

- Comcast는 Xfinity라는 브랜드를 통해 각종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에 더해 스마트 홈 시장에 진출하고 있었음
 - (스마트 셋탑1) 클라우드 UI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이용한 각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VOD 제공시에 고객에게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
 - (스마트 셋탑2) 음성검색 기능으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이야기 하면 그에 맞는 정보를 검색하여 화면에 보여주었음
 - (VOD 시스템) VOD는 기본적으로 대여와 구매로 구분하여 제공했는데 대여는 홀드백이 약간 있는 최신작의 경우 6~\$7, 구매는 16~\$17 수준임



- (스마트홈) Comcast는 이미 IoT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이는 자체 생산한 기기를 통한 서비스와 각 분야에 전문 기기제조 업체와 제휴를 맺어 제공하는 제휴형 서비스 두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스마트 홈1) Comcast는 Xfinity Home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자체 생산한 기기를 바탕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여기에는 허브인 스마트 패드를 중심으로 도어락, CCTV, 온도조절기, 모션감지기 등등이 있었음. 현재 1세대는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으며, 부스에 있는 제품은 연내에 출시할 2세대 제품이었음

- (스마트홈2) 또 다른 모델은 각기 다른 제조사들과 제휴를 한 스마트 홈 서비스로 고객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Xfinity에 등록을 하면 클라우드를 통해 연동되게끔 서비스함

		
스마트홈 시스템 - 자체생산 모델	스마트홈 시스템 - 제휴모델	스마트폰 시연 (택내 모든기기 콘트롤 가능)

< alticast >

- (클라우드 UI) OTT 서비스 대응 및 IOT 서비스 확장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 요구
 -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alticast는 세계 특허를 출원중인 Command방식을 중심으로 스트리밍과 이미지 방식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UI를 출시,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 않은 인터넷 기반의 OTT 서비스의 최적 솔루션으로 평가
- (클라우드 DVR) OTT와 구별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 DVR 서비스를 준비, alticast는 핵심 솔루션인 클라우드 UI를 사용하여 탁월한 녹화 및 재생 성능과 운용상의 편리성을 제공함
 - DRM¹⁾을 보유, 클라우드 DVR 시스템에 필요한 솔루션을 Turn KEY 로 제공 가능

1) DVR : Digital Right Management(디지털 자료의 불법복제 방지)



< TV Everywhere >

- 현재 미국의 MSO들은 OTT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해 맥내에서 셋탑 박스와 스마트 기기들이 연동 서비스(TV Everywhere) 제공
 - 가정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채널들을 스마트 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외부에서는 별도로 계약이 된 일부 소수 채널들만 서비스 제공

< Sling TV >

- Dish²⁾ 산하의 OVD³⁾ 사업자로 월 \$20에 20여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음
- CNN, ESPN, TNT 등 주요 채널들이 포함되어 '15년 1월에 런칭



MSO들의 TV Everywhere



Dish의 Sling TV

2) Dish : 미국 위성방송사업자, 전체 MVPD 중 가입자 수 기준 3위 업체

3) OVD : Oline Video Distributor

3. 시사점

□ 케이블 산업에 대한 규제 변화

-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규제의 변화로 FCC 토머스 윌러 위원장이 밝혔듯 “케이블은 더 이상 TV 사업자가 아니라 브로드밴드(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로 공공 사업자로서 책임이 강조되는 타이틀 2로 분류하여 규제하게 된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NCTA는 케이블 쇼라는 명칭을 버리고 INTX(Internet & Television Expo)라는 새로운 명칭을 올해부터 사용하였으며, 이는 인터넷과 케이블의 융합시대에 미국 케이블TV 사업자가 브로드밴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임
-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고, 다채널, VOD, N스크린, UHD 방송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콘텐츠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 실정임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시청자·이용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설계해야 될 것으로 보임

□ 친소비자 중심으로 기술 발전 경향

-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용자 환경(UI)과 부가서비스 관련 제품과 전략들이 제시되었음
- Comcast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셋탑을 이용하여 고객 맞춤형 VOD, 음성검색 서비스 제공 및 IOT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CCTV, 도어락, 온도조절, 모션감지 등) 2세대 제품들이 관심이 높았음

- alticast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특허 출원 중인 스트리밍과 이미지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UI 출시, OTT와 구분되는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DVR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TV Everywhere 및 Sling TV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업자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었음

□ 국제행사 및 전시회 등 적극적인 참여

- 최근 우리나라는 NCTA의 'INTX'에 비해 손색없는, 어떤 측면에서는 보다 뛰어난 한국기술인연합회 주최 'KOBA 2015'*와 SBS 주최 'SDF(Seoul Digital Forum) 2015'** 등 대규모 국제행사 및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음

* KOBA는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전으로 매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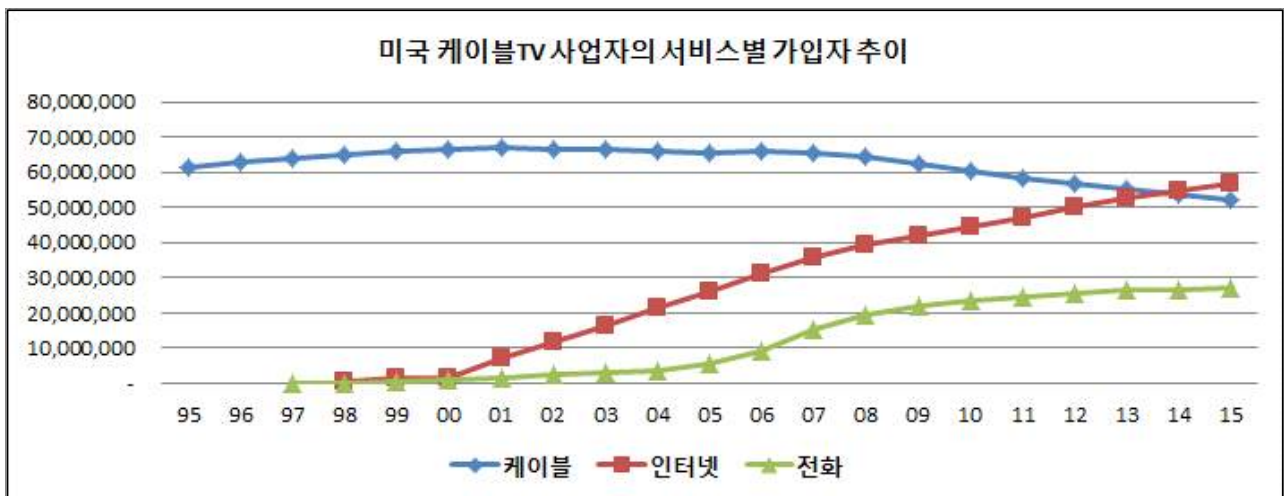
** 서울디지털포럼은 디지털시대 미래흐름 조망 및 비전제시를 목표로 SBS 주최로 2004년 이후 매년 개최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관련동향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을 통해 방송의 발전 방향과 시장을 예측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 미국의 주요 동향

1. 미국 방송 시장의 변화

- 이번 행사에서 과감히 행사명을 INTX로 바꾸고 인터넷을 중심에 놓은 것은 미국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케이블TV 사업자는 방송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인터넷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음



표> 미국 방송, 인터넷 분야 10대 사업자 ('15년 1분기 기준)

순위	방송			인터넷		
	구분	회사	가입자(백만)	구분	회사	가입자(백만)
1	MSO	Comcast	22.5	MSO	Comcast	21.2
2	위성	DIREC TV	20.3	Telco	AT&T	16.4
3	위성	Dish	14.0	MSO	Time Warner	12.0
4	MSO	Time Warner	11.2	Telco	Verizon	9.0
5	Telco	AT&T	5.8	Telco	CenturyLink	6.0
6	Telco	Verizon	5.4	MSO	Cox	4.7
7	MSO	Charter	4.3	MSO	Charter	4.0
8	MSO	Cox	4.2	MSO	Cablevision	2.8
9	MSO	Cablevision	2.8	MSO	Bright House	1.8
10	MSO	Bright House	1.9	MSO	Sunddenlink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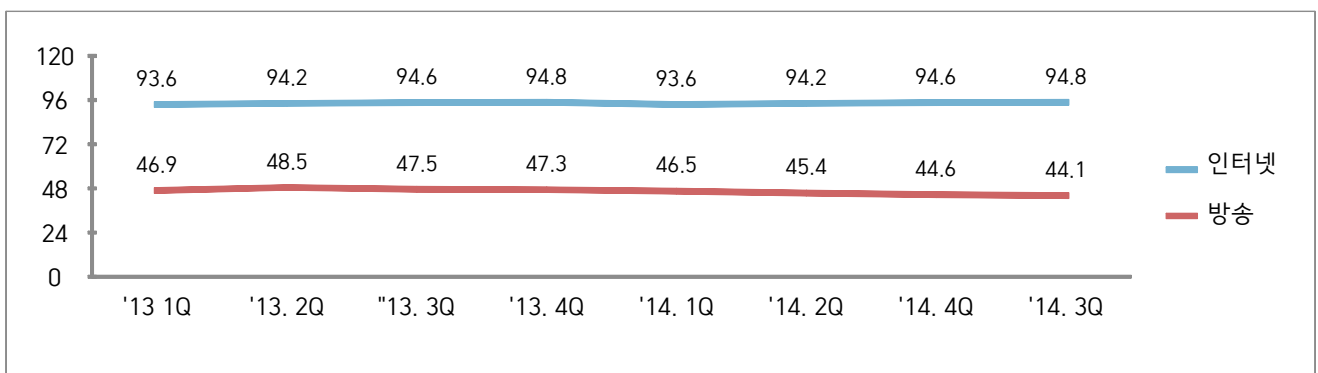
- 국내와 가장 다른 점은 미국은 MSO들이 인터넷 분야에서도 지배적인 사업자라는 것임
 - 인터넷 가입자 1위는 컴캐스트이고 2위가 통신사업자인 AT&T, 그리고 3위가 다시 MSO인 타임워너 케이블임
- 최근 미국의 MSO인 Cablevision은 2014년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이제 방송이 아닌 인터넷 분야에 미래를 걸겠다고 공언하였음
 - Cablevision의 수익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전히 방송분야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OVD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Code-Cutting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
 - 또한, 방송 분야는 콘텐츠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마진율이 점점 하락하는 반면 인터넷 부분은 계속해서 고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

표> Cablevision의 부문별 분기 매출 추이

(단위: 백만\$)

연도 분기	2013년					2014년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방송	767	793	797	792	3,150	793	806	800	788	3,187
인터넷	330	338	336	339	1,343	347	354	356	359	1,416
전화	209	211	210	211	841	220	227	233	230	910
광고	27	37	40	44	148	32	41	43	48	164
기타	23	23	24	25	95	25	27	27	29	108
합계	1,356	1,402	1,407	1,411	5,577	1,417	1,455	1,459	1,454	5,785
B2C 등	155	168	161	173	656	159	173	167	177	676
합계	1,511	1,570	1,568	1,584	6,233	1,576	1,628	1,626	1,631	6,461

[그림] Cablevision 마진율 추이



- 과거 독점적 지위에 있던 플랫폼 사업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 때문에 경쟁 압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음
- 그러나, 네트워크는 C-P-N-D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중 가장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사업자가 등장하기가 쉽지 않음
 - 이에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함
-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콘텐츠 비용은 사업자의 이익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어 방송 플랫폼 사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케이블 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네트워크 쪽에 더욱 주력하도록 만들고 있음

2. 미국 규제 변화

- 향후 방송의 패러다임이 온라인 동영상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면 모든 방송통신 정책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정책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망중립성 이슈라 할 수 있음
- 이번 INTX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주제는 오픈 인터넷 규칙이었음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망중립성(Net neutrality) 이슈에 큰 관심을 보이며 FCC 의장이었던 탐 휠러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적극적으로 오픈 인터넷 규칙 도입을 하였음
 - 탐 휠러는 2014년 5월에는 '지불자 우대정책'에 찬성했지만, 오바마가 강력하게 망중립성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하자 입장이 급선회하여 오픈 인터넷 규칙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음

- 망중립성 이슈는 향후 방송 생태계의 가치사슬에서 어느 사업자에게 주도권을 주느냐의 문제로 현재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만들고 망사업자들에게 망중립성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은 MSO나 Telco의 미래의 수익을 막는 처사라 할 수 있음
- FCC는 2013년 오픈 인터넷 규칙을 발표하여 ISP 사업자가 특정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대가를 받고 전용선을 제공해주는 것을 금지한바 있으나, 미국법원은 2014년 1월에 FCC는 “타이틀 I”으로 분류된 ISP사업자에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
- 1996년에 개정된 미국 통신법(Communication Act)은 방송통신 사업자를 4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때 FCC가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타이틀 II”와 달리 “타이틀 I”은 FCC가 부수적인 관할권만 갖게 되었음

표> 기존의 미국 방송통신사업자 역무 구분

타이틀 I	타이틀 II	타이틀 III	타이틀 IV
• 정보서비스(ISP) • FCC는 부수적 관할권만 소유 • 망대가 청구 가능	• 유선 전화를 비롯한 통신사업자 • 커먼 캐리어 의무: 엄격한 제재 가능 • 망중립성을 통해 망대가 청구 불가	• 라디오, 텔레비전 • 무선전화	• 케이블 서비스

- '15.4월 FCC가 내놓은 오픈 인터넷 규칙의 핵심은 기존에 “타이틀 I”의 “정보 서비스(상업용 상업)”로 분류되어 있던 ISP사업자의 지위를 “타이틀 II”로 분류하며 “커먼 캐리어”의 지위로 변환한데 있음
- 이러한 조치로 FCC는 ISP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이들에게 오픈 인터넷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었음